칼빈의 성경 영감에 대한 이해(Ⅱ)[1]

-분열된 한국 장로교의 화합을 위한 신학적 단상-

양신혜_백석대학교 강사

5. 성경 해석: 베드로후서 1장 16-21절

베드로후서 1장 16-21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성서 영감에 대한 그의 이해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칼빈은 영감을 성경의 본질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성경 해석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1) 복음의 확증

이 단락에서 칼빈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1] 목격자로서 베드로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서 "사도 자신이 경험한 것"은 "의심 없이 믿을 만한 것"[2]으로 인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사도가 경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그의 힘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간의 죄는 깨끗하게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3]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인간의 구원이며 이것이 칼빈의 성서 이해에 있어 핵심이 된다. 그는 베드로가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가 복음을 깨달아 알았다

는 것과 복음이 전하는 구원을 믿었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었을 뿐이다.

칼빈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확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칼빈은 어떻게 확신에 이르게 되는 지에 대해서 16절에 나타난 'sofi,zein' 란 단어를 주해하면서 설명을 시도한다. 그는 이 단어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 내다(excogitare)"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낸 "허위의 이야기(captiosa fabula)"로 단지 "무지한 영혼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일만 할 뿐이다. 이러한 해석이 바로 칼빈이 초대 교부들 혹은 에라스무스와 달리 강조하고자 한 사실이다.[4]

다르게 역설하면 복음의 확신은 선지자들이 도달한 확신으로, 선지자들의 권위 역시 그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를 통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5]만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선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사람들"[6]이다. 이처럼 선지자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것"[7]으로 또한 사도들에게도 주어진 의무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들은 선지자들을 계승한 자로, 선지자들은 인간에 근거하지 않는 복음의 확실성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계승이 지닌 권위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베드로가 성경이 어떤 인간적인 형태나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8]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한 충동(impulsus a spiritu sancto)"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칼빈은 강요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주석과 같이 영감을 성령의 충동으로 이해하였다. 충동은 열광주의자들이 지닌 능력과 달리 선지자들 역시 분명한 의식 속에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이다. 선지자들이 지닌 분명한 의식 가운데 "성령의 성소처럼 선지자들의 입을 주장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를 뿐이다."[9]라는 구절은 사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전승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리 자체가 권위를 정당화함을 인식한다.[10] 이것이 바로 칼빈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항이다.

사도들의 증언을 읽고 듣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칼빈은 성령의 역할로서 "양심의 내적 증거(interius conscientiae testimonum)"[11], "성령을 통한 보증(spiritus obsignatio)"[12]에서 답변을 찾는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가 전하는 것, 즉 "성경에 전승되어 봉인되어 있는 것"[13]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사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한 성령이 지금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증거와 복음이 신적인 근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도록 인도한다.

2) 성경의 자증성

베드로후서 1장 19절 주석(1551)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칼빈의 독특한 용어인 '자증성(아우토피스토스:auvto,pistoj)' 이란 단어이다. 이 단어는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 는 의미를 지니며, 칼빈의 성경 영감에 대한 이해를 축자영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이 단어를 성경의 신적 본질을 증거하는 단초로 이해하여 그의 축자영감설의 주장을 지지한다. 요컨대, 이러한 칼빈의 '자증성' 을 뜻하는 그리스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1) 성경의 자증성의 용례 분석

칼빈은 피기우스와의 논쟁(1543)에서 처음으로 '자증성' 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우토피스토스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 문헌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논증하기 위해서 교회가 합의하여 결정한 근본교리(principium)를 위의 단어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 실제로 피기우스가 성경의 모호하고 어두운 의미 때문에 우리를 교회의 결정으로 인도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성경 문헌에서 차용하는 일은 정말 웃긴 일이다. 성경문서에서 얻은 근본 교리들은 스스로 자명하며 최대한 그 자증성을 보존한다.[14]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해석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교리자체가 이러한 신뢰성을 보증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 칼뱅은 자증성이란 단어를 히브리서 6장 18절 (1549)주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sermo Dei)과 베드로후서 1장 19절(1551)에서는 "복음의 진리"(evangelii doctrina)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간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의심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있다.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 자체로서 스스로 자증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15] 성경의 자증성은 믿음 안에서 스스로 증거하는 복음의 가르침 그 자체이며,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분명한 인식과 더불어 동시에 발생한다.[16] 또한 성경의 명료성은 복음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해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추론된다. 이와는 반대로 로마교회의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자증성은 인간의 오만한 권위로 무익하다.[17]

위의 주제와 관련하여 칼빈의 강요 최종판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그가 여기서 유일하게 자증성이란 그리스어를 직접 성경에 연결하여 사용(I.7.5)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시한 단락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그리스어 '자증성'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부문장으로서의 주문장–"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자"–에 의존한다. 더불어 앞의 주문장에서 결론을 유도하는 접속사(ergo)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문장이 유도하는 문장이 I.7.4에서 언급된 내용, 즉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 부문장에서 무엇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지를 설명한다: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확고하게 성경을 신뢰한다."[18] 여기에서 성경에 대한 신뢰성은 성령의 내적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은 내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내적선생'(doctor internus)으로, 이러한 표현은 강요 I.6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인식에 이르도록 하는 선생이며 인도자로 나타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령은 내적으로, 말씀은 외적으로"[19] 인간을 참된 인식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두 가지 역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두 방법으로 인간의 사역에 동참한다. 셋째, 앞의 구절과 다음의 부문장–이 문장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리스어 '자증성'이 나온다–을 연결

하는 접속사(et…quidem)는 앞의 것을 부가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경은 자증한다. 이는 이성적 근거들에 의한 논증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성령의 결과물인 확실성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 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이성적 근거에 의한 논증을 넘어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로써 성경이 자증한다는 것은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로써 I.7.4에서 언급한 내용 중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한다는 것과 연결하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그 자체로써 독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말을 건넴' 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도록 이끄는 데 있으며 이는 성령의 간섭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의 자증성 역시 성경의 어떠한 객관적인 신적 본질을 형성하는 근거가 아니라 성령의 간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신적 호흡"[20]으로 이것이 바로 다른 일반 서적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이룬다.

(2) 성경의 내적 힘과 그 수용에 대한 이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논쟁에서 어떻게 진리의 인식을 이해했는지 다룬 다음의 구절이 중요하다. 칼빈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보장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의 수용이라는 점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교회는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며 또한 주저 없이 성경을 높임으로써 그 경건한 의무를 다한 것이다.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교회의 결정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은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다: 빛을 어둠과 구별하고, 흰색을 검은색과 구별하며, 단맛을 쓴맛과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마치 흰 물건과 검은 물건이 그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각기 그 맛을 확실히 드러내듯이, 성경도 과연 그것이 진리라는 명확한 증거를 충만히 드러내는 것이다.[21]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선 성경의 진리 인식을 칼빈은 바로 "성령의 은밀한 증언"[22]으로 간주하였다: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의 근거를 인간의 추리나 판단 혹은 이성보다도 더 높은 것에, 즉 성령의 은밀한 증언에 두어야 할 것이다."[23]

여기에서 인식은 인간의 경험에 근거하고 성경과 관련, 그 진리를 경험한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진리 그 자체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항상 그 진리를 깨닫는 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다. 진리에 대한 내적 확신에 이르도록 영향을 끼친 성령의 내적 증언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지 않으며, 어떠한 증거나 이론으로도 유도될 수 없는 앎(notitia)이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확신이다. 곧 이것은 그 자체에 근거를 지니고 있는, 바로 마음이 어떤 이론적 근거보다 더 안심하고 더 견고하게 토대를 둔 지식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지 하늘의 계시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감정이다."[24]

이러한 이해는 칼빈의 히브리서 4장 12절 주석에 나타난 다음 구절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결국, 말씀이 이러한 힘을 인간을 향하여 분명하게 드높이지 않았을 때조차 그렇게 항상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25] 칼빈은 성경의 힘인 진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강조점을 다르게 둔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 힘이 "어떤 형태로(quodammodo)" 내재되어 있다는 표현은 성경의 수용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공간이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공간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이 지닌 자증하는 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지 혹은 믿음과 삶에 따라서 검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칼빈은 "그(하나님)는 영혼의 모든 근거들을 관통하고 생각들을 검증하며 욕망을 간파하고 단적으로 말해 스스로를 심판자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 안으로 이 힘을 불어넣는다."[26]고 언급한다.

이외에 칼빈은 1539년에 성경의 신적 권위를 대해 "하나님의 신적 위엄(majestas)이 확실한 능력으로 성경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성경의 내용인 "주제의 장엄함"[27] 이나 "진리의 강렬한 힘"[28] 으로 인식되어 인간의 실존론적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성경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한 논리적 근거들로써 성경과 다른 일반적인 책들과 구별하는 단서가 된

다. 성경은 돌처럼 또는 문자나 단어에 고착된 것처럼 인간에게 엄습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자체를 생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이는 칼빈이 성경의 형태보다 내용이 지닌 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더욱 우선시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높이 기리는 것이 그 언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주제의 장엄함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든든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 천국의 그 숭고한 비밀들이 대부분 비천하고 초라한 말들로 표현되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비범한 섭리가 없지 않았다."[29]

단순히 성경의 문자나 단어가 아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충족하게 스스로를 드러낼 때에 비로소 진리가 모든 의혹을 물리치고 진리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다."[30]라는 믿음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진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꿰뚫게 되는 진리를 다루기 때문인데, 칼빈은 이러한 성경의 힘을 일컬어 "신적인 호흡"이라고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 결국,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품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무엇이 있으며, 무언가 신적인 것이 거기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31]

이러한 호흡을 한번 경험하면 진리가 가진 힘 때문에 성경의 위엄과 유일성을 확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성경에 대한 확증을 심어줄 만큼 충분하지 못한 논증들이 매우 쓸모 있는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32]라고 확신한다.

성경이 지닌 끌어당기는 힘은 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당화된다. 이러한 경험은 성령이 성경 안에서 감지하는 호흡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일깨운다고 증거하도록 인도한다. 경험 역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불어넣은 숨으로 인간의 믿음을 일깨운다. 마침내 성경의 자증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증성을 통해 믿음에 속한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다.

(3) 성령이 지닌 내적 확신의 역할

칼빈은 성경을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 즉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

추는 빛으로 표현하여 성경에 내재된 힘의 보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빛은 단지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단지 밀폐되어 어둠에 갇혀 있는 책일 뿐이다: "순종 가운데 모든 인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며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빛'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33] 하나님이 복음과 그의 영이 끼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인간들을 보살피는 행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主)가 인간을 돕기 위해서 그의 말씀의 빛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어둠은 우리의 감각을 완전하게 어둡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 볼 수 있다.[34]

단순히 성경은 자체로서 혹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명료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추는 빛은 그것을 순종하는 인간들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때 성경이 자증하는 진리가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구원을 가져다주고, 그 삶을 참된 삶으로 만드는 진리로 확증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성령은 인간이 세상에 매여 임의적으로 행하는 인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일, 즉 인간적 인식능력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믿음의 인식 또한 인간 전체의 삶과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은…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만든다."[35] 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깨끗하게 하다(purgare)'는 중세 신비사상가들 사이에서 '신비의 연합(unio mystica: 정화(purgatio)-조명(illuminatio)-완성(perfectio))'을 이루는 준비단계로, 그것은 성령을 통한 정화작용으로 성령의 본래 임무인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칼빈은 여기에서 이성이 사라지거나 거부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비로소 성령의 개입으로 회복되

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지식 또한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존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한 진리의 확증과 연결된 지식이다.

성경의 개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은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에 임의의 것을 첨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봉인된 교리를 다시 인간에게 각인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 내거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교의를 조작해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인정된 복음의 교의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바로 그 교의를 우리 마음에 인증해 주는 그런 분이다."[36]

그러므로 모든 영적 경험을 성경에 근거하여 측정하며 "성경의 저자"[37]인 성령만이 "내적인 선생"으로 믿는 자들에게 빛을 비춘다. 성령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비추는 빛으로 지속적으로 본래 자신인 성경과 합의를 이룬다. 또한 성령은 해석학적 순환처럼 "단지 그 자신과 비교될 수 있으며 그에 의하여 측정 혹은 판단될 수 있다."[38] 믿는 자의 마음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할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역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교환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39] 칼빈의 이러한 이해는 "계시자와 계시, 즉 주체적 그리고 객관적 계시의 일치"[40]로 표현된다.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해석자로, 그가 성서의 텍스트를 읽는 자에게 객관적 대상으로서 성서 텍스트 역시 자신의 텍스트가 되도록 만들며 이렇게 만난 진리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성령은 이러한 진리가 인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성령은 성서에 권위를 부여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 아래서 혹은 그의 백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요약

성경의 자증성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그가 성경의 권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했다는 것과 성경 해석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의 권위가 정당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성경 자체에 있어 스스로 증거하는 힘, 자증성은 성령을 통해서 성서의 진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이해되며 성경 안에 내재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서는 '계약'(promossio)의 형태로 계시된 것이다. 이러한 진리가 성령의 힘에 의존시켜 인간에게 말을 거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텍스트의 문자적 형태는 이러한 진리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만남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의 증언을 듣는 행위로부터 시작하며 듣는 행위가 결여된 채 성경을 통해 말을 건네는 것은 진리로 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이 왜 문자적 또는 역사적 의미에 강조점을 두었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문자를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문자를 통해서 지시하는 의도가 내용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성경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는 독자와 청자를 텍스트가 형성된 역사적 정황에 가둬 두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증거하는 진리 역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를 통해 텍스트의 역사적 형태를 초월하는 힘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에 대하여 칼빈은 외적으로 다른 책과 비교하여 성경이 지닌 힘은 다른 특징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불어 넣은 성령 자체가 생동적으로 작용하는 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다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성경의 진리와 밀접하게 묶여있는 성령은 인간의 이성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조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진리를 인식하도록 인도한다. 성령은 이 진리를 통해서 전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칼빈은 이러한 방법으로 자증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 이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교회적 권위나 영의 삶을 지향하는 열광주의자들의 논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논증하였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앞의 두 가지는 인간적인 자의로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감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단지 성령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그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인간 역시 성경이 지시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거나 파괴시키는 것으로부터 막

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성령이 이러한 역사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적인 통찰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성경의 해석

칼빈은 성경에 대한 그의 이해를 토대로 20절과 21절에 걸쳐 어떻게 성경을 주석해야 하는지를 언급한다. 그는 성경의 해석을 성령에 내 맡기는 행위로 보며 "성경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성의 척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깊은 삶의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으므로"[41] "불손한 예리함"[42], "자기 자신의 의견"[43], "육체에 따른 의견"[44]들은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에게 있어서 이는 성경의 자증성에 대한 이해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의 해석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인간의 구원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명료하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성령과 성경의 살아있는 중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단지 성경은 어둠에 갇힌 상태로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믿음의 유비(analogia fidei)"를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서 삼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인도 아래에 이루어지는 해석' 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적합한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적합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한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진리를 찾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45] 또한 성경 해석은 리쾨르의 표현처럼 "텍스트에 자신의 던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믿음의 진리는 인간의 판단 아래에 놓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지층을 넘어서 도달하는 것"[46]이 된다.

만약 인간이 이것을 행한다면 그는 "더 넓어진 자기 이해"[47]를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세속적인 문서의 경우에는 자신의 확장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에 해당한다. 쾨르트너(U. H. Koertner)는 이를 해석학적 원리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자신의 제한된 이해력을 텍스트에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텍스트에 자신이 던져 텍스트를 통해서 더 확장된 자신을 얻고, 실제로 텍스트가 제공하는 세계기획에 합당한 것으로서 실존의 구상을 얻는 것이다.[48]

이러한 원칙을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의 영에 자신을 던지는 자는 성령을 통한 텍스트의 저자의 영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세계기획' 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제시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겸손 가운데 행해지는 해석"과 "형제적 사랑으로 함께 이루는 노력"[49]을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삼았다. '겸손 가운데 행해지는 해석' 이란 칼빈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기 인식, 즉 각각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약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떤 인간이 온전한 계시를 가졌다면 그는 모든 비판을 뛰어 넘는 선물을 받은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계시는 인간의 판단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그의 영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특정한 잣대를 주었으므로 가장 풍성한 선물도 완전한 어떤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비평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부터 깔보아서는 안 된다.[50]

칼빈은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한 "가장 최상"의 해석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성경 해석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것이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2)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해석

칼빈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주석에서 성경의 해석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한 확고한 확증과 연결하여 서술한다.[51] 우선 인간이 본래의 이성을 넘어서는 지혜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알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

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심연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감추어진 지혜(arcana…sapientia)"[52]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는 연약한 인간의 영으로 파악할 수 없다."[53]고 자명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계시하자마자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확증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54] 다시 말해 성령의 선포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깊은 간격을 극복하게 하며 결국 성령은 성경해석의 주체이자 "복음의 교리를 밝히 드러내는 참된 해석자"[55]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인간은 "복음의 교리를 단지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다."[56]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성령은 흔들리지 않는 확증을 심어 주는데 인간은 이 확증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명백하게 깨닫게 된다.[57]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확신이 바로 "초자연적인 선물(*domum supernaturalium*)"[58]로써 성경해석 과정에서 참된 하나님의 인식과 그의 말씀이 지닌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증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결코 인간의 이성을 단순하게 소외시키지 않으며, 인간 역시 "우둔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통하여 인간적인 이해로 넘어 갈 수 있다.[59] 인간의 이성이 진리로 향하는 경향과 더불어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붙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잘못된 성향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진리를 인증하게 한다.

칼빈이 이해한 성령과 인간의 이성적 만남은 "믿음의 선포에 동의"[60]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 해석은 전적으로 믿음의 '논리적' 또한 '이성적' 이해로 이성의 동의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역할 아래서 그와 합의를 이루는

이성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6. 연구 분석 결과

칼빈의 성경영감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도한 분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의 역할과 연관하여 칼빈은 인스피라치오 또는 인스피라레라는 단어를 강요에서 드물게 사용하였다. 오히려 다양한 동사들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숨을 불어 넣다' (afflare), '충동하다. 격려하다' (instinguere), '통치하다. 관리하다' (gubernare), '받아쓰다' (dictare) 등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주석에서 불가타 번역과는 달리 인스피라레(inspirare)대신에 '충동하다' (impellere)로 번역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감을 의미하는 라틴어 인스피라레(inspirare)가 성경의 신적인 본질을 구성하는 외형적 근거로 삼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오히려 인간을 제압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할로 이해한 뒤에, 이것을 하나님과의 실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둘째, 칼빈은 성경의 문서들이 전승되어가는 형성사의 관점에서 그 문서의 권위를 한편으로는 선지자의 권위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영감에 두었다. 선지자의 권위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봉사자(minister)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라는 점에 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간섭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이 행해야만 하는 임무를 깨닫고, 이 때 그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서 충실하게 그리고 신뢰할만하게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선지자적 권위 역시 바로 그가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신뢰할만하게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이 성경의 저자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성령의 도구" 또는 "서기관"이란 표현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다.

셋째,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어진 임무 부여는 그들을 부른 소명에 대한 확증에 근거한다. 이러한 소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이자 말을 먼저 건네는 자로 등장하고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답하는 자로 나타난다. 이렇듯 칼빈은 선지자를 증인

으로서 표현함으로써 성경 전승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소급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칼빈은 성경 저자의 영감과 성경의 권위를 인식하도록 인도하는 조명을 유비적(analog) 관계로 이해한다. 한편으로 영감은 성경의 문서들이 전승될 때 성경의 권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독자가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확신하도록 인도한다. 성경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성경의 권위의 수납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수납자가 시 · 공간을 넘어서 성경 저자의 의도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납자들은 성령의 개입을 통해서 성경 안에 봉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여,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

다섯째, 칼빈은 성경의 자증성을 성경 안의 내적인 힘, 즉 어떤 객관적인 힘이 내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간섭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힘으로 독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의 성경 해석은 텍스트 자체가 건네는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 텍스트의 문자적 형태는 성령의 역할인 독자의 믿음과 텍스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째, 칼빈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성경해석의 가능성들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해석들은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가능한 현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정적인 주장이다. 칼빈은 이런 전제조건 아래 교회 안에서 개진되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였다. 모든 해석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으로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 역시 "겸손 가운데서" 그리고 "형제애로 서로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7. 나오는 말

현재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의 화합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본고는 시도되었다. 무엇보다 분열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경 영감을 중심으로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은 칼빈의 성경 영감 이해를 근간으로 화해의 단초를 찾고자하였다.

칼빈의 성경 영감 이해에서 나타난 이론적 토대를 나열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를 높이 칭송할 뿐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하는 분열의 영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통일성과 교회의 화합에 도움을 주는 성경 해석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그는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근거로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어떠한 교리적인 추론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로마 가톨릭 교회 및 열광주의자, 리버틴파와의 논쟁에서만 이 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빈은 단지 성경의 영감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경 형성의 근거가 바로 성령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단지 인간적인 경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고 그 자체로서 권위를 지니게 되므로, 교회가 이를 인증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향을 통해서 믿음에 도달한 자들 모두 성경의 증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면 칼빈의 영감에 대한 이해는 분열된 장로교의 화합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칼빈은 성경의 어떠한 신적인 본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문자나 단어와 성령의 역할로서 영감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성경의 영감을 통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추동하는 힘으로 이해하였다. 더불어 이해컨대, 성령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증인"이 된다. 여기에서 칼빈이 사용하는 "성령의 도구", "서기" 내지는 "비서"란 용어가 이해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임무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위해 헌신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모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경 이해의 근거가 된다.

칼빈이 사용한 '성령의 도구'란 용어 분석에서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텍스트가 축자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리가 유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감이란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이 한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인도한 뒤, 하나님의 인식과 인간으로서의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증인으로 대신하

도록 이끈다. 요컨대, 성경의 증언들이 성령에 근거한 증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감을 문자와 연결시켜 그 문자의 무오를 주장하는 축자영감설이 필요치 않음을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분열된 한국 장로교들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칼빈의 성서 문서들의 형성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칼빈은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섭리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은 인간이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한 것만을 기록하고 선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로 이해된다.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경을 기록한 사역자들의 증언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놓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은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존론적으로 인간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증언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권력 행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인간과 만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을 이끌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한다. 그리하여 모든 증언은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한 부분이며 이러한 성경문서를 단순히 인간적인 해석으로 보아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에 근거하여 스스로 숙고함으로써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성경의 문서 역시 결코 종교적이거나 내지는 세상에 내놓은 관심의 유희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그의 권력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도록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칼빈이 성경 해석함에 있어 두드러지게 강조한 성령이 한국교회에 살아 숨 쉬게 된다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교회 역시 이러한 성경 문서들을 통한 풍성한 보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을 논쟁삼아 서로 다투거나, 그 의미를 왜곡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의 능력을 발판 삼아 이 세상에서 그의 길을 펼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칼빈이 성경의 역사적 인식과 성경 본질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는 동시에 성경 해석에서 영감을 조명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하나의 길을 제

시함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조명 없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감과 조명을 성령의 동일한 역할로 이해한다. 칼빈은 조명을 영감과 유비적 관계에서 이해하여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인식을 얻는 길로 보지 않았다. 단지 텍스트의 본래의 의미를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는 다른 시대적 정황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시했을 뿐이다.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현실화되는 이러한 영적인 인도가 성경의 증언들이 지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역할로서 조명은 성경의 수납자들이 성경이 생성된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전달한 성경을 기록한 그들의 증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든다. 성경의 영감으로부터 분리된 조명은 오히려 이러한 영적 이해를 방해한다. 칼빈은 분열된 한국 교회에게 성경의 증언들이 지닌 본래의 영적 의미에 집중하고 모든 논쟁에서 이것에 우선권을 두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성경의 자증성이 한국교회 내에서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칼빈은 성경의 자증성을 어떤 객관적인 것으로 성경의 본질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영향 아래서 특별하게 매료시키는 '힘'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자증성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그의 보편적 경향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성경의 자명한 권위는 믿는 자들에게 넓은 지평을 열어주어, 권위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일깨우고 이 확신은 각 개인이 다소 벗어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더욱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적 사랑의 토대 위에서 더불어 공동체적 삶의 길을 추구하게 인도한다. 이러한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진 성경의 자증성을 우리 시대에 시 · 공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성경의 문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또 다른 오솔길로 인도할 것이다.

칼빈은 성경에 대한 이해에서 보편적 교회를 위한 신학자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및 열광주의자에 반대하여 거대한 종말론적 역사 아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열어준 선택의 장에서 인간과 더불어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숙고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칼빈을 그 시원으로 삼는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 아래서 숨 쉬는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하며 이러한 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분열된 한국 장로교회에서 가장 필요하다. 가상

양신혜 | 박사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종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칼빈의 "성서 영감에 대한 이해: 한국장로교 분열에 나타난 성서 영감과 성서해석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논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백석신학교에 출강중이다.

주(註)

1) 1) CO 55, 453: 벧후 1;16.
2) CO 55, 452.
3) CO 55, 453.
4) 불가타에서는 "전달된 것"(*docere*:*doctus*), 고대 교부들은 "꾸며낸 이야기(fingere)"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저술 방법(ars composita)"으로 이해하였다.
5) CO 55, 458.
6) CO 55, 458.
7) CO 55, 458.
8) CO 55, 458.
9) CO 55, 458.
10) CO 55, 458.
11) CO 55, 453.
12) CO 55, 453.
13) OS V, 141, 14f.; IV.8.9.
14) CO 6, 272.
15) CO 55, 455.
16) CO 55, 455.
17) CO 14, 36f.
18) OS Ⅲ, 70: I.7.5.
19) OS Ⅲ, 303; Ⅱ.5.5.
20) OS Ⅲ 72, 39; I.8.1.
21) OS Ⅲ, 67, 2f.; I.7.2.
22) OS Ⅲ, 69, 11; I.7.4. 1539년에서 1954년까지는 성령의 내적 증거(testificatio)로 나타내었다.
23) OS Ⅲ, 71, 8ff.; I.7.5.
24) OS Ⅲ, 71, 8ff.; I.7.5.
25) CO 55, 50.
26) CO 55, 50.
27) OS Ⅲ, 72, 13f.; I.8.1.
28) OS Ⅲ, 72, 22; I.8.1.
29) OS Ⅲ, 72, 12ff.: I.8.1.
30) OS Ⅲ, 72, 27f.; I.8.1.
31) OS Ⅲ, 72, 38f.; I.8.1.
32) OS Ⅲ, 72, 3f.; I.8.1.
33) CO 55, 457.

주(註)

34) CO 55, 457.
35) OS IV, 44, 15f.; Ⅲ.2.33.
36) OS Ⅲ, 82, 33ff.; I.9.1.
37) OS Ⅲ, 83, 33; I.9.2.
38) OS Ⅲ, 83, 33f.; I.9.2.
39) OS Ⅲ, 84, 8ff.; I.9.3.
40) G. W. Locher, Testimonum internum: Calvins Lehre vom Heiligen Geist undas hermeneutische Problem, Zuerich 1964, 14쪽.
41) CO 55, 458.
42) CO 55, 458; arroganter acumen nostrum.
43) CO 55, 457; proprio sensu.
44) CO 55, 457; carnis sensu.
45) CO 49, 345.
46) CO 49, 345; 고전 2,15.
47) U. H. J. Koertner, Theologie des Wortes Gottes,328.
48) 윗글, 327-28.
49) CO 10b, 405.
50) CO 49, 531.
51) CO 49, 341.
52) CO 49, 342.
53) CO 49, 342.
54) CO 49, 341.
55) CO 49. 344.
56) CO 49, 341.
57) CO 49, 341.
58) CO 49, 341.
59) OS IV, 44, 6ff.; Ⅲ.2.33.
60) U. H. J. Koertner, 236.